

新聞資料를 이용한 地域學習에의 接近 -地域 教科書에서의 實踐的 活用을 위한 試論-

鄭 光 中*

목 차

- I. 序 論
- II. 教育資料로서의 新聞記事의 特性
- III. 新聞資料의 教材化 段階
- IV. 地域 教科書에의 適用
- V. 結 論

I. 序 論

現代社會가 시간의 흐름속에서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는 사실은 한 사회의 발전과 적응을 위하여 인간의 내면적인 심리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複雜性和 多樣性を 적극적인 자세에서 이해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 내재하는 인간의 내면적 심리를 발견하려는 일련의 과정은 먼저 學校教育에서 선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학교교육 중에서도 사회과 교육은 특정사회에서 전개되는 社會的 事實과 現象을 비롯한 점진적인 사회의 변화나 또는 그 변화로부터 향후에 예측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시대에 맞는 지식을 터득하고, 그를 토대로 개개인의 판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습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¹⁾

*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전임강사

1) 교육부, 1992, 『국민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 97.

그러나 사회과의 학습을 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실과 현상들을 실질적으로 포착하고, 그것을 어떠한 학습으로 진행하였을 때 학생들 개개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혼란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만큼 사회과의 學習方法이나 學習過程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항상 다양성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습방법의 다양성은 다분히 현대사회의 여러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고 터득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지만, 그 반면에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식습득 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사고능력을 떨어뜨리는 일면도 소개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이해력과 사고능력을 전제로 선택되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은 결과적으로 교사의 自律性이 강조되는 이면에, 평소 교사의 能力과 才致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난다.²⁾

본고에서는 지역학습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현상과 문제를 이해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그 방법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신문자료의 활용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社會科 教育에서의 地域學習은 教育課程 상의 근거에 입각하여 항상 初等學校 課程에서부터 중요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는 教科書와 教師用 指導書에만 의존하는 병폐로 인하여, 항상 틀에 얽매이고 학생들의 興味誘發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³⁾

교육현장에서의 모순은 특히 교사들이 消極的인 教材研究와 더불어 學習資料의 부족현상으로 빚어진다는 점에서,⁴⁾ 교사 자신은 물론 教育 行政家나 學界의 專門家들도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들의 地域學習에 대한 이미지는 學校와 家庭 및 地域社會의 내용을 언제나 間接的인 經驗과 被動的인 思考 및 태도속에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경직된 틀로서 자리잡고 있다.⁵⁾

본고에서는 지역학습의 矛盾點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교사와 학생들 주변에서 언제나 접할 수 있는 新聞資料를 활용하여 지역학습의 展開를

- 2) LAWS, K. J., 1977, "Geographical Education in the Primary School", Geographical Education (Australian Geography Teachers Association), Vol.3, No.1, pp.85-91.
- 3) 임경재, 1995, 「국민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방안」, 『21세기를 대비한 국민학교 사회과 수업의 방향탐색』(충청남도 교육청후원, 1995년도 사회과 교육 세미나 자료), pp.50-57.
- 4) 金榮哲, 1995, 「初等 社會科 教育에 있어서 地域化 實態에 관한 研究 - '4-1.1. 자원이 많은 강원도'를 中心으로-」, 『江原地理』, 第12號, pp.19-28.
- 5) 岩田一彦, 1993, 「小學校 社會科의 授業分析」, 東京書籍(日本: 東京), 191p.

구상함으로써, 학습내용에 따른 교사의 教材研究의 의욕을 증진시키는 물론, 학생들의 적극적인 學習參與와 興味誘發을 기대할 수 있는 方向性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教育資料로서의 新聞記事의 特性

1. 新聞記事의 一般的 特徵

오늘날을 흔히 정보화 시대, 혹은 정보화 사회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러한 사회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新聞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은 각종 社會的 現象 및 社會問題와 연관되는 최신 정보를 일반대중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매일 발행되고 있는 신문의 종류는 中央紙와 地方紙로 대별할 수 있다. 다시 중앙지 중에는 一般紙와 專門紙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예를들어 前者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등이 해당되며, 後者는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등이 포함된다. 지방지의 경우는 각 지방에서 발행되는 것으로서 강원일보, 충청일보, 마산일보, 제주일보 등과 같이 지방의 이름을 붙여 발행되는 것들이 해당된다.

教育的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중앙지나 지방지의 구별을 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나, 학습내용에 따라서는 중앙지나 지방지의 한 종류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문은 다른 인쇄매체가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일반적 特徵을 지니고 있다.⁶⁾

- ① 周邊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經濟的이다.
- ② 視覺的인 效果를 지닌다.
- ③ 恣意的인 選擇에 의하여 자유로운 時間에 이용할 수 있다.
- ④ 集團的이기 보다는 個人的 狀況하에서 필요한 情報에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자료로서의 일반적 특징은 결과적으로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課題學習이나 調查學習의 진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6) 朴容憲, 1989, 「社會集團과 社會學」(朴容憲·崔貞淑 공저, 『教育社會學』, 323p.),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p. 68-100.

된다.⁷⁾

2. 新聞記事의 執筆者에 다른 特徵

新聞記事의 성격은 執筆者에 의하여 크게 두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記者가 직접 집필한 記事로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거나 또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전문가의 의견이나 참고문헌 및 각종통계(도표, 연표 등 포함) 등을 토대로 집필한 것들이다.

따라서, 대체로 이 경우의 記事는 해당기사에 대한 記者의 專門性, 努力性, 執筆하기까지의 投資時間 등이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그런 관계로 記事의 내용을 어느 정도의 線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 문제는 記事內容의 眞僞與否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教育資料로서 활용될 경우에 학생들에게 미치는 教育的 效果와 더불어 교육후의 영향까지도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특정분야의 專門家가 집필한 것으로서, 대부분 新聞社로부터 원고의 청탁을 받아 집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의 記事는 信賴性에 있어서 前者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교육자료로서의 활용가치도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볼 수 있으나, 記事內容이 전문성을 띠는 만큼 내용자체는 難解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비록 教師라고 할지라도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자료로서의 선택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여하간, 모든 신문들이 일반대중들에게 最新情報의 전달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만큼, 資料로서의 활용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으나,⁸⁾ 효율적인 活用을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新聞記事의 특징을 파악한 후에, 學習主題 또는 學習內容과의 相關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Ⅲ. 新聞資料의 教材化 段階

신문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결과적으로 讀者(使用者)의 사용목적과도 相關性을 맺게 된다. 즉 사용자의 興味, 嗜好 및 關心領域에 따라 記事選擇의 여부가 판가름

7) 鄭蕤棋 外 7人, 1996, 『新刊 社會科教育論』, 教育出版社, p. 398.

8) 任德淳, 1993, 『地理教育論』, 法文社, 316p.

나며, 나아가 記事가 지니는 價値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자료로 활용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記事의 性格과 價値性을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학습자료로서의 활용계획 및 준비단계, 즉 資料의 教材化가 선행되어야 한다.⁹⁾

다시 말하면, 신문은 2次的 資料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¹⁰⁾ 2차적 자료가 지니는 원래의 목적과 기능자체를 교육현장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교사의 資質과 經驗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¹¹⁾

신문자료의 教材化는 精選, 分類, 組織化(系統化), 分析 및 解析, 學習內容으로서의 要點整理, 學習 指導案 作成 등의 단계를 걸쳐야 한다. 이 여섯 단계에 대한具體的인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이 要約·整理할 수 있다.

1. 新聞資料의 精選段階

학습할 내용에 맞는 新聞記事를 엄밀하게 선정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학습내용은 대략 두 가지 범위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즉, 하나는 교과서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關聯性을 가지는 경우로서, 이 때는 特定單元에 맞추어 한정된 범위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주가 된다. 반면에 교과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關聯性이 없더라도, 내용상 擴大 혹은 發展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學習對象과 연관시킨다면, 前者는 初等學校 課程에서, 後者의 경우는 中·高等學校 課程에서 보다 效果的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¹²⁾

어떻든, 신문기사와 학습내용과의 關聯性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調整이 가능하며, 또한 교사의 力量에 따라서는 학습대상 선정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記事內容과 學習內容 혹은 學習對象의 선택을 先入觀的인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사려된다. 다시 말하면, 精選된 記事를 어떠한 目的下에 사용할 것인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¹³⁾

9) 吳英泰, 1985, 「社會科의 學習活動」(權五定 外 共著, 『初等教育科 社會科教育(I)』, 415p.),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pp. 161-173.

10) 崔錫珍, 1989, 「社會科 教授·學習資料論」(韓國社會科教育研究會 編, 『韓國社會科教育學概論』, 338p.), 教育科學社, pp. 103-114.

11) 정광중, 1996, 「사진자료를 이용한 초등학교 사회과의 교재화 연구 -외국여행의 사례를 통하여-」, 『사진지리』, 제4호, pp. 47-62.

12) 岩田一彦·今谷順重·小原友行 編著, 1990, 『個を生かす課題學習とは』(中學校社會), 東京書籍(日本: 東京), 189p.

13) 金蓮玉, 1990, 『社會科 地理教育研究』, 教育科學社, 444p.

2. 新聞資料의 分類段階

여러 가지 記事들 중에서, 교과서의 내용이나 학습내용 등을 고려하여 경제, 문화, 사회, 지리, 생활, 환경 등 일련의 大主題에 따라 구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新聞記事의 活用計劃에 따른 파일의 준비(구입)와 함께 파일의 目次整理를 필요로 한다. 파일은 記事內容의 분량과 형태에 좌우될 수 있으나, 최소한도 A4 用紙의 記事가 삽입될 수 있는 크기의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여러 개의 파일을 미리 준비하여 主題別로 분류·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學習內容의 구성을 전제로 필요한 작업이다.

구체적인 記事의 분류작업은 나름대로의 틀을 정할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면 표 1과 같이 간단하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되, 비슷한 내용의 記事는 一連番號를 붙여 정리하여 사용시에 便利를 도모함이 좋다. 이 경우에 파일내에서는 동일 페이지내에 같이 保管·整理하거나, 혹은 각 記事의 여백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일련번호는 목차노트의 번호와 동일해야만 時間的인 節約을 꾀할 수 있다.

표 1. 신문기사의 주제별 정리 양식

[주제 : 국제]

| 자료번호 | 신문 기사의 제목 | 게재 신문/면수 | 게재 년월일/요일 | 파일번호/페이지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자료) 필자의 案임.

[주제 : 환경]

| 자료번호 | 신문 기사의 제목 | 게재 신문/면수 | 게재 년월일/요일 | 파일번호/페이지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자료) 필자의 案임.

신문자료의 분류는 특히 한정되어 있는 전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학습할 경우에는 더욱 그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作業이다.¹⁴⁾

3. 新聞資料의 組織化 段階

新聞資料의 組織化는 많은 量의 신문자료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에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단계이다. 물론 신문자료만을 가지고 수업을 전개한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無理일지는 모르나, 특히 時事性을 요구하는 내용이거나 최근의 國際關係와 연관되는 내용을 학습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最新 圖表를 근거로 하여 연속적으로 보도하는 신문자료가 큰 效力을 발휘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¹⁵⁾

예를 들어 1997년 7월에 중국으로 반환되는 홍콩은 향후 홍콩주민들의 생활, 정치, 무역 및 개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도 무역 관계를 비롯하여 21세기를 향한 동아시아의 據點確保問題 등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모든 매스컴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特筆記事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홍콩반환과 향후의 주민문제'에 대한 학습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 또는 타 학습자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가령 相關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이미 지난날의 '중개 무역항으로서의 홍콩'에 관한 서술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소 장황한 설명이 되었으나, 요약하자면 상황에 따라서는 신문자료가 지금까지 정착되어 있는 이미지의 단순한 補助資料가 아니라, 核心資料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문의 特定記事(예, 連載記事)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상황하에서는 유사한 記事¹⁶⁾들을 系統化하거나 組織化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문자료를 활용한 具體的인 組織化의 형식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을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다.

14) 여기서 전 수업시간이란 교육부령에 의하여 초·중·고교의 학습과정별로 정해진 수업시간을 말한다.

15) 李 燦 의 5인, 1975, 『地理科 教育(教科教育全書 7)』, 한국능력개발사, 352p.

16) 최근 여러 신문들은 특정기사에 대한 기획으로서 1일 1회 또는 주 1회의 간격으로 연재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다. 위에서 거론한 홍콩문제를 예로 든다면, 朝鮮日報에서는 1995년 9월 20일~24일에 걸쳐 '카운트다운 홍콩반환'이라는 기사로, 1996년 6-9월에는 격주로 '영욕 150년 홍콩의 오늘'이라는 記事가 연재되었다. 또한 같은 신문에서 1997년 1월 1일부터는 '홍콩 特區 時代'라는 기사로 현재 연재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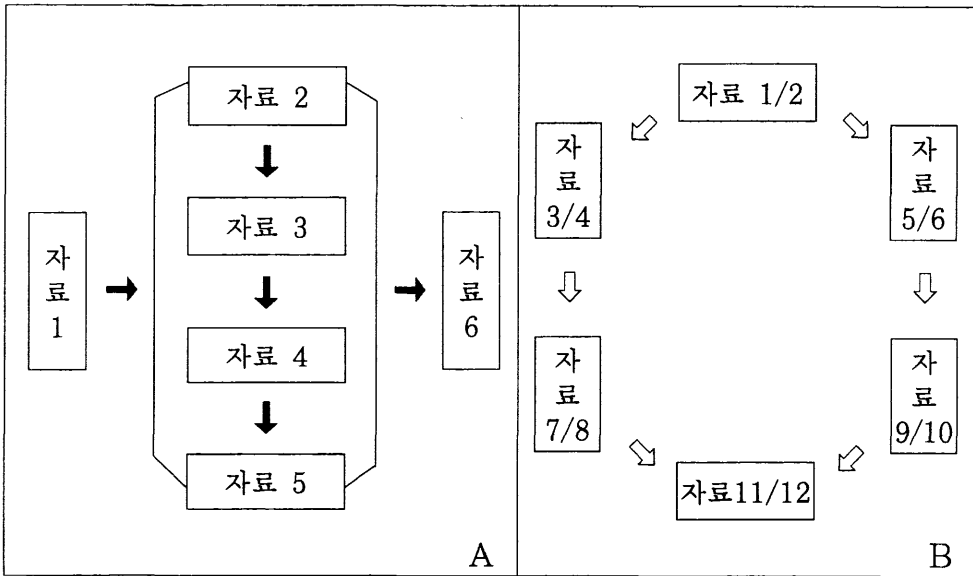


그림 1. 신문자료 조직화의 형식(사례)

4. 新聞資料의 分析 및 解析段階

본 단계는 자료의 組織化를 통해서 構想된 여러 자료를 순서에 입각해서 分析함과 동시에, 교사 나름대로의 解析을 행하는 작업이 주가 된다. 이 단계에서는 精選되고 分類된 신문자료의 분석과 해석 이외에도 학습시에 필요로 하는 統計, 寫眞 및 그림 자료의 보완과 확보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記事중의 전문용어나 개념, 또는 인명은 辭典과 專門書籍을 토대로 확인·정리하며, 國內地名과 世界地名에 대해서도 社會科 附圖나 地圖帖(Atlas) 등에서 구체적인 위치의 확인을 행해야만 한다. 특히 記事중의 인용할 문장은 선긋기, 혹은 따로 메모를 하여 학습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新聞記事에는 보통 설명하는 文章과 함께 寫眞,¹⁷⁾ 統計資料 및 그림(그래프, 地圖)資料 등이 실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개는 記事와 學習內容과의 관계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외의 것은 무심코 삭제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교사는 사진 한 장이나 그림 한 장이 학습효과나 학습 분위기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7) 新聞紙上의 寫眞은 크게 人物寫眞, 景觀(風景)寫眞, 現場(事件)寫眞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모든 사진이 상황에 따라 學習資料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5. 學習內容으로서 要點整理段階

新聞資料에 대한 분석과 해석단계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학습내용에 대한 요점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로써 第 1段階의 資料 教材化가 끝난다. 결국, 要點整理의 단계는 교사 자신이 학습시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도입→전개→종합·정리」의 순서로 체계적인 설명을 위한 단계이므로, 學習 指導案(授業案)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는 셈이다. 이 단계에서는 學習 指導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즉 도입, 전개, 종합·정리부문에서 필요한 내용과 항목설정 및 구분, 부문별 보조자료의 확보, 발문·토의내용의 선정 등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6. 學習 指導案(授業案)의 作成段階

學習 指導案은 이상의 5단계에서 실행된 작업을 토대로 작성한다. 학습 지도안의 틀은 현재 사용하는 것과 특별히 구별지어 작성할 필요성은 없겠으나, 신문자료가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성이 적거나, 신문자료의 성격상 기존의 틀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지도안 構想도 고려해 볼만 하다.

IV. 地域 教科書에의 適用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서술한 新聞資料의 教材化를 토대로, 구체적인 신문자료를 바탕으로 初等學校 4學年에서 사용되는 地域 教科書 內에서 그 적용을 시도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신문자료는 지역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意圖的으로 수집·선택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지역 교과서는 筆者가 근무하는 濟州道 地域의 것으로서, 교육부에서 발행된 1996년도판 『아름다운 제주도』(4-1)이다.

1. 지역 교과서(『아름다운 제주도』)의 내용구성

지역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신문자료의 적용을 시도하기 이전에, 먼저 제주도의 지역 교과서인 『아름다운 제주도』의 施行過程과 內容構成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아름다운 제주도』는 他市·道와 같이 제6차 教育課程

을 근거로, 1995년도에 일단 시범운영 기간을 걸쳐 19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에 적용·사용되고 있다.¹⁸⁾

표 2는 ‘아름다운 제주도’의 내용구성을 목차형식에 의하여 구분한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을 領域別로 검토하면, 「1. 제주도의 모습」과 「3. 살기 좋은 제주도」단원이 地理的 領域에 해당되며, 「2. 제주도의 내력」단원은 歷史的 領域에 속한다. 그리고 「4. 발전하는 제주도」는 社會的(문화·정치·경제·법) 領域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내용구성을 時間的인 視點에서 검토해 보면, 現在視點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제 1단원과 제 3단원이고, 過去視點에서 다룬 내용은 제 2단원이며, 現在視點과 未來視點을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제 4단원이다.

표 2. ‘아름다운 제주도’의 내용구성

| 단원 및 주제 | 페이지 | 단원 및 주제 | 페이지 |
|---------------|-----|----------------|-----|
| 1. 제주도의 모습 | 6 | 3. 살기 좋은 제주도 | 88 |
| (1) 자연 환경 | 8 | (1) 발달하는 산업 | 90 |
| ① 한라산 | 9 | ① 감귤 | 91 |
| ② 푸른 바다 | 16 | ② 조랑말 | 98 |
| ③ 따뜻한 기후 | 19 | ③ 잠수 | 101 |
| (2) 지도 여행 | 25 | ④ 세계속의 제주 | 105 |
| ① 여행 준비 | 26 | (2) 교통과 통신 | 111 |
| ② 지도 읽기 | 32 | ① 전학 온 친구 | 112 |
| ③ 통계표와 도표 | 40 | ② 찾길 여행 | 117 |
| 2. 제주도의 내력 | 46 | ③ 제주도 오는 길 | 121 |
| (1) 조상의 발자취 | 48 | ④ 편리한 통신 | 127 |
| ① 삼성혈 | 49 | 4. 발전하는 제주도 | 132 |
| ② 관덕정 | 52 | (1) 우리들의 소망 | 134 |
| ③ 한라 문화재 | 58 | ① 마을 사람들의 의논 | 135 |
| ④ 삼무 정신 | 61 | ② 제주 자연 사랑 봉사대 | 141 |
| (2) 연표와 역사 지도 | 67 | ③ 어승생 수원 | 148 |
| ① 향토 조사반 | 68 | (1) 제주도의 앞날 | 155 |
| ② 연표 만들기 | 72 | ① 일기 예보 | 156 |
| ③ 역사 지도 읽기 | 79 | ② 의회와 도청 | 163 |
| ④ 고장을 빛낸 사람들 | 82 | ③ 2000년대의 제주 | 170 |

(자료) 교육부, 1996, 사회과 탐구 「아름다운 제주도(4-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8) 지역 교과서는 본격적으로 적용한 결과, 각 시·도의 지역특성과의 연계성이나 내용구성 및 편제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점과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제주도(4-1)’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비판은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2. 學習에의 活用을 위한 前提

교사의 입장에서 신문자료 활용을 전제로, 前掲한 『아름다운 제주도』의 내용중에서 교과서의 學習主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하나 선정한 후,¹⁹⁾ 그에 대한 신문자료를 수집·정리하였다.

신문자료의 수집은 이미 발행된 신문이 전제되기 때문에, 대학 도서관에 정리·비치된 지방신문²⁰⁾과 필자가 구독하는 신문(제주일보)²¹⁾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전술한 신문자료의 교재화 단계에 의거하여 지역학습으로서의 수업연구 차원에서 실행하였다. 단, 본 事例研究에서는 전술한 자료의 교재화 단계중에서 자료의 精選段階와 分類段階가 의도적인 견지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았음을 명시한다.

3. ‘잠수(潛嫂)’ 主題에 대한 深化學習의 展開

잠수에 대한 내용은 제 3단원의 ‘(1) 발달하는 산업’이라는 主題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地理的 領域 중에서도 産業學習과 관련된다. ‘㉓ 잠수’에 대한 본문속 내용의 분량은 101~104페이지로 설정되어 있지만, 잠수에 관련된 說明量은 2페이지(101-102)로 주로 앞부분에 해당되며, 뒷 부분은 잠수 이외의 어업(배를 이용한 고기잡이, 양식업)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의 본문내용에 따르면, “잠수는 여자들이 바다속에서 해산물을 캐내는 일”을 가리키기며,²²⁾ 또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본문속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으나, 제주도에서는 잠수 일을 하는 사람을 보통 ‘잠녀(潛女)’ 또는 ‘해녀(海女)’라고도 한다. 이를 기초로 신문자료의 수집조건은 ‘잠수’와 ‘해녀’를 키 워드(key word)로 하였다.²³⁾

19) 필자는 지역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주제에만 신문자료를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지역 교과서가 개편될 가능성을 전제한다면,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든 지역 내에 존재하는 학습주제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 제주교육대학교의 도서관에 정리·비치된 신문은 中央紙로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일간 스포츠의 7종과 地方紙서 제주일보, 한라일보 및 제민일보의 3종으로 합계 10종이 있다. 本稿에서는 地域 教科書의 내용과 관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地方紙인 3종만을 근거의 자료로 삼았다.

21) 제주일보는 1996년 10월 30일까지 제주신문으로 발행되고 있었으나, 同年 11월 1일부터 현재의 제주일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22) 교육부, 1996, 사회과 탐구 『아름다운 제주도(4-1)』,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 p.101.

23) 잠수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표기하면 ‘潛嫂’와 ‘潛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前者보

교과서의 본문 내용을 필자 나름대로 평가·분석한 후, 신문자료를 수집·정리한 결과는 표 3의 목록과 같다.

표 3. 「잠수」학습과 관련되는 신문자료의 목록

[주제 : 地理 / 잠수]

| 자료 번호 | 신문 기사의 제목 | 계재신문/면수 | 계재 년월일/요일 | 파일번호 /페이지 |
|----------|----------------------------------|----------|-----------------|--------------|
| 1 | 기획연재 해녀 <1> | 한라일보/ 6면 | 1990. 9. 19. /수 | 1 / 1 |
| 2 | 기획연재 해녀 <1> | " / 6면 | 1990. 9. 21. /금 | 1 / 2 |
| 3 | 기획연재 해녀 <20>-태왁- | " / 5면 | 1991. 1. 9. /수 | 1 / 20 |
| 4 | 기획연재 해녀 <29>-해녀회- | " / 5면 | 1991. 3. 13. /수 | 1 / 29 |
| 5 | 기획연재 해녀 <36>-출가 3- | " / 5면 | 1991. 5. 1. /수 | 1 / 36 |
| 6 | 기획연재 해녀 <71> -직업어 18- | " / 5면 | 1991.10. 9. /수 | 1 / 71 |
| 7 | 기획연재 해녀 <93> -속담 10- | " / 5면 | 1992. 6. 11. /목 | 1 / 93 |
| 8 | 기획연재 해녀 <95> -해녀노래 1- | " / 5면 | 1992. 6. 18. /목 | 1 / 95 |
| 9 | 기획연재 해녀 <140> -해녀항쟁 1- | " / 7면 | 1993. 1. 4. /월 | 1 / 140 |
| 10 | 제주인의 항일사 -여성참여 「제주 해녀항쟁」- | 제민일보/ 5면 | 1991. 7. 4. /목 | 1 / 143 |
| 11 | 제주의 옛 풍물 -작살에 고무줄을- | 한라일보/ 9면 | 1993.10. 23. /토 | 1 / 150 |
| 12 | 제주의 옛 풍물 -해녀- | " / 9면 | 1993.10. 25. /월 | 1 / 151 |
| 13 | 제주의 옛 풍물 -해녀 세사람- | " / 9면 | 1993.10. 27. /수 | 1 / 152 |
| 14 | 잠수병 "있나 없나" 논란 | 제민일보/19면 | 1996. 5. 1. /수 | 1 / 160 |
| 15 | 9년째 지켜지지 않는 약속 "잠수 탈의장 지어주겠다" | 제주신문/23면 | 1996. 9. 18. /수 | 1 / 175 |

(주: 자료의 배열 순서는 발행인을 기준으로 함.)

(자료) 上記 新聞에서 발취·정리

다 後者が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다. 특히 初等學校 학생들에게는 前者보다는 後者の 의미가 더 친숙한 단어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初等學校 학생들의 경우는 보통 잠수라고 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만을 연상하게 된다. 그런데, 지역 교과서 상에서 한글표기로 '잠수' 또는 '잠수들'이라고 표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학생들에게는 後者の 의미를 연상하는 속에서 '行爲者'를 의미하는 前者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과서의 본문중에는 '잠수일' 혹은 '잠수 생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시켜 교사가 보완적인 설명을 하면, 충분히 誤解를 해결할 수는 있으나,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잠수와

1) 潛嫂資料의 精選과 選擇理由

본 사례학습에서 ‘잠수’에 대한 신문자료의 精選과 分類段階는 학습주제로서의 자료성격을 具體化시킴으로써 이해의 접근도를 높일 수 있다.

표 3에 제시된 자료중에서 1~9번까지는 기획 연재물로 학계의 전문가가 집필한 것이다. 이 자료들은 1990년 9월 19일 제1회로 출발하여 1993년 1월 25일의 최종회(월요일, 7면)에 이르기까지 약 2년 5개월에 걸쳐, 해녀들의 삶과 잠수업의 실태, 해녀들의 해외로의 진출, 해녀들의 항일투쟁, 해녀와 관련되는 職業語 및 俗語, 民謠(해녀노래) 등 많은 내용을 항목별로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과의 연계성에서 볼 때 ‘잠수’ 학습을 심화시키는데 좋은 자료라고 판단되어 精選·分類되었다.

10번 자료는 濟民日報의 ‘제주인의 항일사’라는 기획물 중에서 「해방때까지의 투쟁(3회)」을 다룬 것으로서, 3회중의 2회째가 해녀들의 항쟁을 취급한 것이다. 집필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해녀항쟁에 대한 내용과 관점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11~13번까지의 자료는 한 장의 사진을 토대로 하여, 과거 해녀들의 生活史를 해설 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본 자료도 연재물 기사이나 해녀와 관련되는 것은 본고에서 선택한 3枚이며,²⁴⁾ 이 자료들은 사진 한 장 한 장이 학생들의 視覺的 效果와 함께 興味를 유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14~15번 자료는 여러 자료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서, 잠수들의 건강문제 및 잠수들과 어촌계(제주시) 행정과의 관계를 다룬 내용이다. 이 자료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잠수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실에서, 그 배경과 문제점 등을 생각하게

같은 의미로서 ‘해녀(海女)’와 잠녀(潛女)가 있다. 어쨌든, 잠수(潛嫂)와 더불어 세 단어중에서 어떤 것이 제주도 잠수(潛嫂)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지에 대해서는 筆者자신도 확실한 知識을 갖고 있지는 않다. 宋成大 教授는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해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宋成大, 1996, 『濟州人の 海民情神-情神文化의 地理學的 了解-』, 濟州文化, 466p.), 아직도 용어의 정확한 정의나 출현시기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한 듯하다. 初等學校 교육에서는 國語辭典에 나타나 있는 標準語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상식임을 강조해 둔다. 本稿에서도 ‘잠수’와 ‘해녀’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잠수’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新聞資料 그 자체에 대한 성격규정 및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신문자료 상의 원제목에 나타난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부언한다.

24) 본 신문에 게재된 원래의 사진은 제주도 출신 사진작가인 ‘만농 홍정표’氏(他界)가 주로 1950-60년대에 걸쳐 촬영한 것이다. 1993년에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만농 홍정표 선생 사진집」을 발간하였는데, 최근 제주지역의 지방신문과 잡지 등에는 본 사진집의 사진을 많이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價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는 성격에서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2) 潛嫂資料의 組織化

이상과 같은 新聞資料의 내용과 성격을 토대로, 그림 2와 같이 組織化를 시도하였다. 이 組織化 段階는 ‘잠수’ 학습과 관련하여 일정기간내에 정선된 자료만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量에 따라 혹은 타자료의 追加에 따라서 훨씬 효과적인 조직화를 구상할 수 있음을 지적해둔다.

예를 들어 본 자료만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잠수’ 학습에 대한 교사의 意圖나 접근하는 視點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組織化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신문자료의 경우도 학생들의 흥미유발을 동반한 학습 분위기의 조성 혹은 知識體系의 上下構造, 社會現象의 進行방향(순서) 등에 의하여 組織化의 流動性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는 표 3에 제시한 15개의 자료중에서 簡明한 사진 3매와 그 해설을 出發點으로 하였다. 이어서 제주도 여성들이 왜 잠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自然的·社會的 背景을 설명한 자료로서 본격적인 수업전개의 轉換點으로 삼았으며, 다음단계에서는 잠수들이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도구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나아가 가족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일본이나 러시아 등의 진출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료를 배치하였다.

다섯 번째에 설정한 자료에서는 학습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키는 意味에서, 잠수들과 잠수작업의 역사적인 흐름속에서 형성된 속담과 잠수노래(해녀노래) 등을 살펴도 록 構想하였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話題를 전환하면서 잠수들이 생활영위와 밀접한 조직체인 海女會(잠수회)에 대하여 학습한 후, 일제의 탄압이 행해지던 시기에는 이 해녀회를 기반으로 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한 사실에 대해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늘날 잠수들에게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問題點을 인식한다는 관점에서, 오랜 잠수생활로 인하여 나타나는 잠수병 문제와 잠수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잠수 탈의장(해녀 대합실)의 건립문제에 접근함으로써, 현대 지역사회의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대응 등을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배치하였다.

나아가, 앞서서 제시한 자료 1, 2를 맨 끝에 재차 제시한 이유는 잠수들의 생활실태와 생활자세를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음미해 봄으로써, 濟州人의 근면성과 협동정신 등을 확인하고, 학생들 자신들도 평소의 生活態度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동시에, 또한 제주인으로서의 矜持를 고취시킨다는 의미 때문이다. 이것은 意圖적인 구성으로, 原點으로 돌아가서 ‘잠수’와 제주라는 地域社會의 관계를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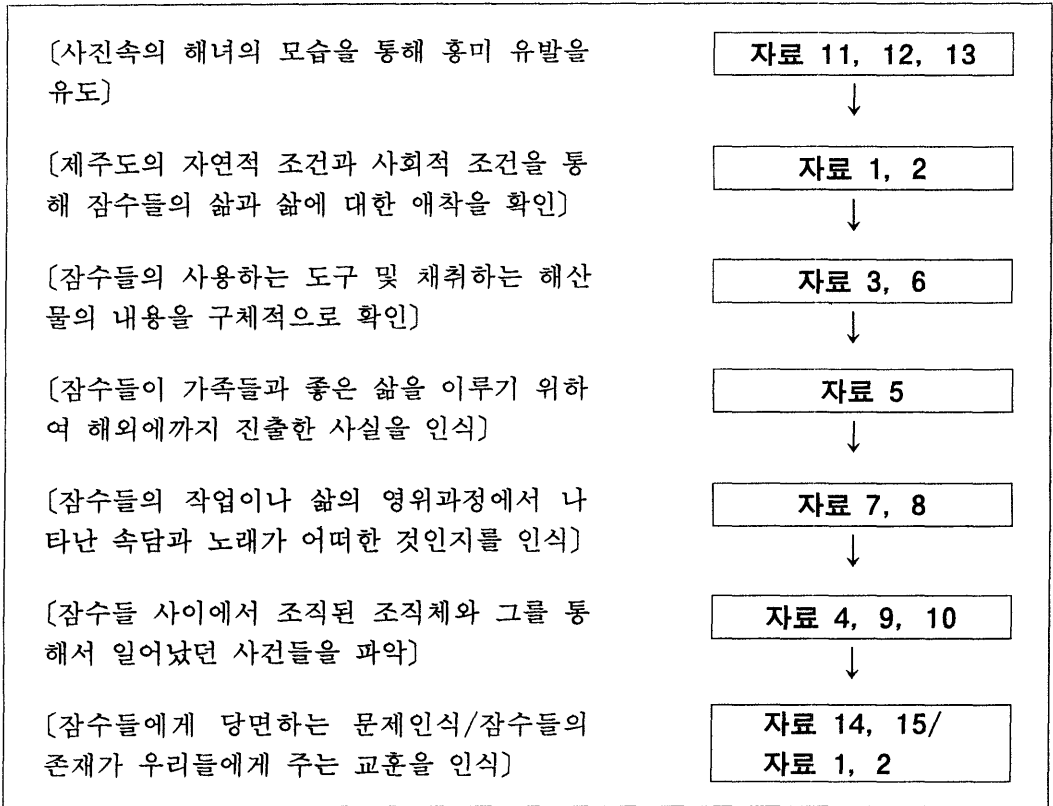


그림 2. '잠수' 학습에 대한 자료의 조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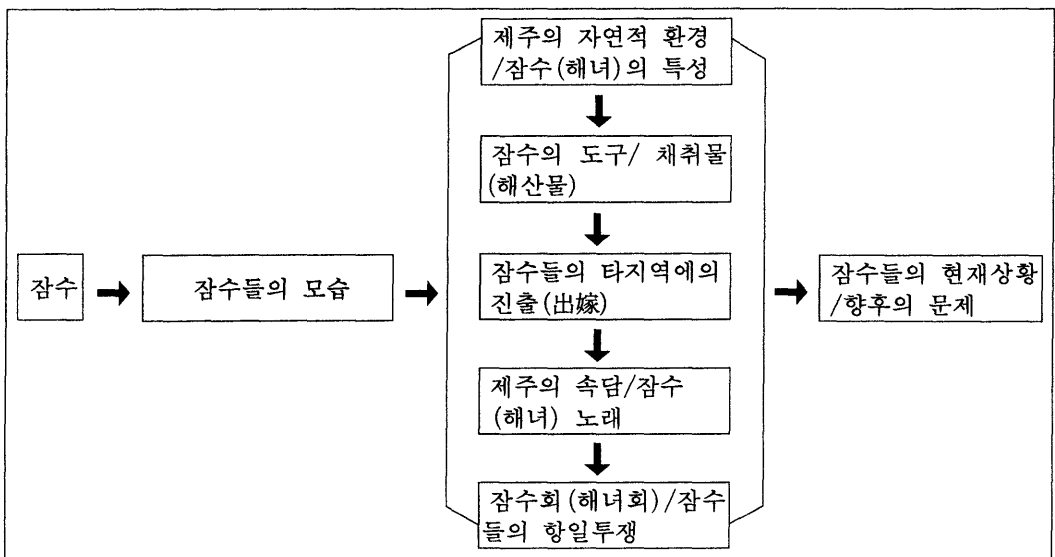


그림 3. 학습내용의 조직화

그림 3은 資料의 組織化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얻어낸 學習內容의 組織化에 대한 實例이다. 물론, 여기서도 교사가 처한 周邊狀況과 選擇資料 및 학습내용의 선택 등을 바탕으로, 내용의 조직화도 의미있고 변화로운 형식을 제시할 수 있다.

3) 潛嫂資料의 分析 및 解析

본 項에서는 자료의 組織化에 의하여 결정된 순서에 따라, 표 3에 제시된 7단계까지의 자료를 단계별로 묶고 학습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해석을 실행한다.

(A) 자료 11, 12, 13

자료 11 : 제목은 ‘해녀 세사람’으로, 바다로 들어가기 전의 잠수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 해녀의 옷차림으로 보아 1970년대 이전의 무명 잠수의(潛嫂衣, 海女服)이다. 즉, 잠수의는 1970년대를 고비로 고무옷으로 바뀐 것이다. 세 해녀 주변에는 태왁, 작살 등이 보이며, 배경은 바다에서 가까운 자갈밭이다.

자료 12 : ‘해녀’라는 제목인데, 해녀 한 사람이 잠수작업을 마치고 막 물으로 나오는 장면이다. 어깨에 맨 망사리(태왁 끝에 달린 자루) 속에는 채취한 해산물이 들어 있다. ‘바다의 공주님’이라는 해설속의 표현이 사진제목의 ‘해녀’보다도 잘 어울리는 느낌을 준다.

자료 13 : 한 해녀가 바위위에서 작살(魚槍)을 손질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해녀 앞에 놓인 ‘망사리’ 속에 소라 한 개가 보이고 있어, 작업도중에 작살의 고장으로 잠시 나온 상황이다. 해녀들은 해산물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작살을 이용하여 고기도 쏘아잡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잠수의는 자료 11, 12와 마찬가지로 천으로 된 무명 옷이다.

(B) 자료 1, 2

자료 1 : 본 자료는 연재에 들어가기 앞서 제주도의 자연적, 사회적(인문적) 특징을 지적한 내용이다. 제주는 옛날부터 돌 많고, 바람 많고, 여자가 많아서 3다의 섬(삼다도)이라 불리었다. 이 중 돌과 여자는 가시적으로 파

악이 가능한 것으로, 돌하루방과 해녀(잠수, 잠녀)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더욱 상징적인 단어가 되고 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음은 비가 시적인 현상으로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며, 제주도 자연환경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다.

자연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의 많은 여성들은 농사와 가사 외에도 해녀의 직분으로 잠수작업을 하며, 생계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 다시 말해 해녀들은 바다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해녀투사라고도 할 수 있다. 제주도에 여자가 많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제주 여성들이 강인한 정신력과 근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으로 해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는 제주인의 특성(주민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된다.

자료 2 : 제주 해녀들의 생활상과 특성을 잘 나타내는 설명자료이다. 특히, 제주 해녀들의 생활상은 조선 세종때의 기건(奇虔) 제주목사(牧使)와 정조(正祖) 임금의 입에서도 오르내릴 정도로, 헌신적이며 험난한 것이었다. 제주 해녀의 특성은 첫째로 해녀복과 물안경과 태왁만을 가지고 행하는 나잠어업(裸潛漁業)이라는 사실이며, 둘째는 잠수기술과 의지력에서 초인적이라는 점이다. 특수한 장비조차 없이, 넓은 바다에서 해초류와 패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이색적이면서도 신기한 것이다. 또한 잠수들은 재래식 해녀복(무명옷)만으로도 바닷속 20여m까지도 거뜬하게 잠수하곤 한다.

(C) 자료 3, 6

자료 3 : 해녀들이 사용하는 도구중의 하나로 '태왁'을 주제로 하는 자료이다. 태왁의 구조는 물에 뜨게끔 하는 둥그런 박(상당한 부력을 가지고 있음)과 채취한 해산물을 넣을 수 있도록 박 밑의 망사리(그물처럼 엮은 자루형태의 것)로 되어 있다. 즉, 둥그런 박은 항상 수면위에 떠 있고, 망사리 부분은 수중에 잠겨 있게 되므로, 잠수일이 끝날 때까지도 해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게끔 고안되어 있다.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잠수한 사이에도 태왁은 항상 수면위에 떠 있어서, 해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도 잠수일을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태왁의 용도는 두가지이다. 첫째는 해산물을 보관하는 것이고, 둘째는 잠수일을 하면서 가슴에 얹은 채 잠쉬 쉬거나, 다른 쪽으로 헤엄치며 이

동할 때 쓰여진다. 따라서 태왁은 잠수일을 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도구이다. 태왁의 재료는 원래 박이었으나, 1960년대 중반경에 이르러 발포 스티로폼으로 바뀌었다. 박태왁은 박을 각 가정에서 재배하여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반하여, 발포 스티로폼 태왁은 부산 등지에서 생산되어 도내로 들어왔다. 과거에 박태왁을 만드는 작업은 주로 남성들이 담당하였다. 태왁은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구분은 연령이나 몸무게에 따른 해녀의 구분과도 관계된다. 즉, 17~20세의 전후의 어린 처녀나 60세 이상의 노인 여성들은 작은 태왁이나 중간 태왁을 사용하며, 잠수일을 한창 하는 나이의 여성들은 대개가 큰 태왁을 사용한다. 태왁 이외에도 해녀들의 사용하는 도구에는 빗창과 작은 호미(둘 다 주로 전복·성게 등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임), 작살 등이 있다.

자료 6 : 본 자료의 부제목은 직업어(職業語)이지만, 직업어와 관련해서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의 종류와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잠수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을 보면, 전복, 소라, 떡조개(제주어: 오분자기), 성게(동: 구살), 해삼(동: 미), 문어(동: 물꾸럭), 미역, 툇, 우뭇가사리 등이며, 작살을 사용하는 해녀들의 경우는 수종의 어류도 포함된다. 이처럼 해녀들의 채취하는 해산물의 종류는 다양하며, 온갖 해산물을 잡느라고 몇 시간이나 바다속을 헤엄쳐 다닌다. 해산물에 관련된 제주 토속어는 아주 재치가 넘치며, 운치있는 것들이 많다.

(D) 자료 5

본 자료에서는 해녀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고 있다. 해녀들은 고향을 떠나 멀리 타지방으로 심지어는 타국에까지도 가는데, 그 목적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1930년대 중반의 기록인 『濟州島勢要覽』에 의하면, 제주 해녀들은 반도부의 경우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강원도, 황해도, 함경남도, 전라북도 지역순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었다. 나아가 일본과 러시아에도 일부 해녀들이 진출하고 있었음은 놀라운 사실이다. 제주 해녀들은 지리적인 거리와는 거의 관계없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지역 저지역으로 돌아다녔던 것이다. 제주에서 타지역으로 떠날 때에는 15~30명씩 동아리를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타지역과 외국에서 벌어들인 목돈은 자녀들의 학비나 결

혼(혼수), 또는 집과 토지 등을 구입하는 데에 쓰여졌다. 특히 결혼 전의 처녀가 타지역이나 타국에서 목돈을 마련하여 혼수를 마련했었다는 실례는 제주 여인들의 자립심이 얼마나 강했었나 하는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E) 자료 7, 8

자료 7 : 제주의 속담을 정리한 내용이다. 제주의 속담은 특히 여자들의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다. 제주의 여자들은 다름 아닌 해녀들이며, 한 가정의 가장처럼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해결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속담도 여자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릴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제주의 속담을 한가지 들어보자. 「손이 놀민 입도 논다」라는 속담이 있다. 즉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놀리게 되면, 결국 입에 풀칠도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교묘하게 대조시켜 표현한 이 속담은 정말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재치가 넘친다고 하겠다. 또한 배경적으로는 제주의 어려운 생활환경까지도 잘 나타내주는 속담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정의 살림을 거의 도맡아 하는 여자들의 경우에,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삶의 배경을 기저에 두고 있는 것이다.

자료 8 : 해녀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즉 「해녀노래」를 정리한 자료이다. 해녀노래에는 여자들의 삶의 의지와 애환,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표현한 것들이 많다. 이러한 면은 해녀들의 생활이 그만큼 힘들고 애달고 또한 큰 희망을 얻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주 해녀의 노래는 잠수일을 하는 도중에 부르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배를 타고 이동할 때, 노(槽)의 움직임에 맞추어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다른 바다로 이동하는 경우에 부를 때가 많다. 해녀노래는 크게 두 형태로 구분된다. 하나는 원래의 해녀노래, 즉 옛날로부터 구전되어 온 본래 형태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의 곡에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형태의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것은 가사를 때와 장소에 맞추어 새롭게 편집하는 형태로서, 마을의 경사시에도 유효 적절하게 흥겨운 노래가락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이채로운 면을 띠고 있다. 해녀노래의 가사를 감상해 보면, 해녀들의 삶에 대한 의지와 함께 해녀들만의 독특한 세계도 엿볼 수가 있다.

(F) 자료 4, 9, 10

자료 4 : 본 자료는 해녀들의 조직체인 ‘해녀회(海女會, 潛嫂會)’에 대한 설명이다. 잠수일은 해산물의 생산이라는 점에서는 개인적인 노동이며, 그 노동의 대가도 개개인에게 돌아간다. 이것과는 달리, 생산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마을 바다는 해녀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만 한다. 또한 바다는 혼자서는 항상 위험한 곳이 때문에 잠수하러 나가는 시간의 결정, 해산물의 판매과정, 해녀들의 진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을 바다의 사용여부(즉, 잠수(潛水)에 대한 결정권) 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해녀들의 잠수일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해녀회가 담당한다. 나아가 해녀회는 마을 어촌계와 더불어 마을내에서 공공시설의 건설이나 각종행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마을안에서의 위상도 높다. 결국 해녀회는 해녀들의 생산활동과 사회활동을 공동으로 관장하는 친목조직이라 할 수 있다.

자료 9 : 해녀들의 항일운동을 소개하는 자료이다. 제주 해녀들의 항일운동은 그들의 공동조직이라할 수 있는 ‘해녀회’를 중심으로 1932년 1월에 일어났다. 이 운동은 약 3개월에 걸쳐 연인원 1만 7천여명이나 참가하였는데, 이는 1930년대에 발생한 국내최대의 일제 투쟁 운동이자, 어민 복권 운동이었다. 이 투쟁운동이 전개된 장소는 구좌면 세화리 및 우도 등지이며, 근본적인 원인은 해녀들의 채취한 해산물의 소득을 중간기구인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이 착취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해녀어업조합은 해녀들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미명 아래 1920년 4월 16일에 창설되었지만, 1925년을 고비로 해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커지면서, 부정부패의 표상처럼 해녀들의 해산물 소득을 조합비나, 수수료(해산물의 판매처인 조선해조회사),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착취했던 것이다. 특히 당시 해녀어업조합의 조합장은 도사(島司)가 겸직하고 있었는데, 이 도사는 다름 아닌 日本人 다구찌(田口)였다. 해녀들은 당시 전체소득의 8할 정도나 어업조합을 비롯한 일본인이 경영하는 또는 그와 관련된 회사(조직)에 의해 빼앗기곤 하였다.

자료 10 : 본 자료는 **자료 9**와 겹치는 내용도 있으나, 다른 저자(향토 사학자)에 의하여 집필되었기 때문에, 같은 해녀항쟁(투쟁)에 대한 기록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본 자료의 특징은 해녀들의 항일운동과 관련하여, 남자들의 항일운동도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녀들의 항일운동(앞 자료와 겹치는 내용은 생략함)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여자(해녀) 35명, 남자 43명으로 모두 78명이 검거되었다. 이처럼 남자들도 많이 검거되었는데, 그것은 배후에서 여성들을 지지하고 도왔다는 것이었다. 남자들이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도 그럴것이 해녀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어머니이며, 아내이자, 누나들이었기 때문이다. 해녀항쟁은 결과적으로 도내 청년들의 투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제경찰은 전도에 걸쳐 항일투쟁 운동이 전개됨을 우려한 나머지, 해녀항쟁 운동을 계기로 많은 애국청년들을 붙잡아 감금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제주 해녀들의 항일 투쟁 운동은 일본인들의 착취에 의한 삶의 고통에서 비롯되기는 하였지만, 여성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점, 당대 전국 최대규모의 항일운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보존되어야 할 만큼 그 의의는 큰 것이었다.

(G) 자료 14, 15

자료 14 : 잠수병에 대한 시비여부를 다룬 기사로서, 잠수(潛嫂)들의 어려운 역경과 고난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예전부터 잠수들에게는 오랜 잠수생활의 결과, 두통과 폐질환 등을 앓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그러한 질병들이 잠수(潛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1986년과 1988년에 3천 8백여명의 잠수들을 대상으로 심전도, 폐기능 및 암검사 등 21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건강진단을 시행해왔다. 그리고 1994년과 1995년에도 1천 8백여명을 대상으로 관련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잠수병의 유무논란은 의료상의 처우문제, 즉 잠수병의 무료진단과 관계되기 때문에, 잠수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잠수들이 급격히 감소되는 현재, 잠수병 문제야말로 또 한 번 시대적 변화의 흐름속에서 잠수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잠수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 15 : 본 자료는 해녀들에게는 또 하나의 보금자리라 할 수 있는 잠수 탈의장의 건설문제를 다루고 있다. 과거, 잠수 탈의장은 해변가에 돌(현무

암)을 이용하여, 어른 키의 높이로 사방을 두루고 있는 형태였다. 돌담 안에는 잠수일을 전후로 하여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한 가운데에는 잠수일을 마친 후에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불을 지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나, 별다른 특이한 시설들은 없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해녀들의 처우개선 문제와 관광객들의 도내 방문 등에 힘입어, 도내 여러마을의 잠수 탈의장은 대부분이 현대식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시 건입동 잠수회원(산지 어촌계에 속함) 들의 사용하는 잠수 탈의장 만큼은 개발의 여파에 밀려, 아직도 건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에도 건입동 잠수회원들은 고작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슬레이트로 덮어 잠수 탈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9년전 탐동지역을 개발할 때, 잠수 탈의장의 건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방치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잠수 탈의장을 건설해야 할 지역이 다름 아닌 ‘제주시’라고 하는 데에 있다. 지가가 높아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행해지는 ‘시’ 지역에서는, 해녀들이 사용할 좁은 면적의 탈의장 시설조차 제대로 지을 수 없다는 오늘날의 냉엄한 현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물질주의와 개발 우선주의에 만연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료 1, 2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앞서 행하였기 때문에 생략함.

4) 潛嫂資料의 要約 및 整理

이미 前述한 것처럼, 교사의 입장에서 신문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을 유도하는 경우에 분석과 해석단계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그 효과를 높힐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료의 분석과 해석단계는 평소 교사가 지니고 있는 잘못된 知識이나 認識 또는 신문자료상의 誤謬를 발견하여 수정하고 보충함으로써, 교사에게는 본 학습에 앞서 충분한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내용과 본받아야 할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中間過程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상의 實例에서 볼 수 있듯이, 자료의 분석 및 해석내용의 전부를 일정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시킨다는 것은 무리이며, 또한 그럴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교재화 단계 ④에서 행해진 분석 및 해석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단계의 설정이 필요하게 된다. 以下는 그 實例를 나타낸 것이다.

[‘잠수’ 학습의 내용요약 및 정리]

잠수들의 모습

- 잠수의(해녀복)의 변화 : 무명옷(1970년대 이전)에서 고무옷(1970년대 이후)으로 변화함.
- 잠수들의 세대(연령)비교 : 20~60대의 여성까지 다양함.

제주의 자연적 환경 / 잠수(해녀)의 특성

- 자연적 환경 : 삼다의 섬(삼다도 : 돌, 바람, 여자가 많음) → 땅이 척박하고, 태풍·한해 등 자연재해가 잦음.
- 잠수들의 특성 : ㉠ 여성(잠수)들은 가사일, 농사일 및 잠수일까지도 함.
 - ㉡ 해녀복과 물안경 및 태왁만을 사용하는 나잠(裸潛) 어업임.
 - ㉢ 바다속 약 20m의 깊이까지 잠수(潛水)하기도 함.
 - ㉣ 잠수들은 모든 일을 하는데 의지(정신력)가 강하고 헌신적(근면)임.

잠수의 도구 / 채취물(해산물)

- 잠수의 도구
 - ㉠ ‘태왁’ : 윗부분은 박이나 스티로폼 재료를 이용하여 둥글게 만들고, 아랫부분은 끈으로 묶어서(아랫부분은 ‘망사리’라고 함) 해산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한 도구임.
 - ㉡ 태왁의 용도 :
 - 잠수일을 하면서 가슴에 의지하여 쉬거나 이동할 때 사용함.
 - 잠수일을 마칠 때까지 채취한 해산물을 보관함.
 - ㉢ 태왁 이외에 물안경, 빗창, 작은 호미, 작살 등도 도구로 사용함.
- 채취물(해산물) : 전복, 소라, 떡조개, 성게, 해삼, 미역, 툇, 우뭇가사리, 문어, 기타 수종의 어류.

잠수들의 타지역에의 진출(出稼)

- 과거 : 반도부(국내) 및 외국으로 진출한 잠수들이 많음.

㉠ 국내 :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강원도, 황해도, 함경남도 순으로 많이 진출했었음.

㉡ 외국 : 일본이 가장 많고, 러시아 등지에도 일부가 진출했었음.

- 현재 : 주로 도내의 마을 바다에서만 잠수일을 함.
- 진출 목적 : 목돈마련 → 자녀들의 학비 및 결혼자금, 또는 자기 집과 밭을 구입하기 위함.
- 타지역(반도부 및 외국)으로 진출한 때의 특징 : 15~30명씩 동아리를 이룸. 경우에 따라서는 젓먹이 아이도 데리고 감.

제주의 속담 / 잠수(해녀) 노래

- 속담 : 여러 속담들 중 여성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있음.
 - ㉠ 예 : ‘손이 놀민 입도 논다’ →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놀리게 되면, 입에 풀칠도 못한다(살아가기 힘들다).
 - ㉡ 제주 여인들의 삶의 배경을 나타내기도 함.
- 잠수(해녀)노래 : 잠수들이 잠수일을 하러 나갈 때나, 잠수일을 하는 도중에 즐겨 부르는 노동요임.
 - ◇ 잠수노래의 구분 : ㉠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본래 형태의 노래
 - ㉡ 본래 형태의 노래를 때와 장소에 맞추어, 즉흥적으로 가사(노랫말)을 바꾸어 부르는 노래(즉, 편집한 노래).
 - ◇ 잠수노래의 특징 : ㉠ 편집한 노래는 마을의 공동일이나 경사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됨.
 - ㉡ 잠수노래에는 해녀들의 삶에 대한 의지와 애환 등 해녀들만의 독특한 세계를 엿볼 수 있음.

잠수회(해녀회) / 잠수들의 항일투쟁

- 잠수회(해녀회) : 잠수(해녀)와 잠수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단체조직.
 - ◇ 담당 하는 일 : ㉠ 마을 바다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보호(계획 및 대책 논의).
 - ㉡ 해녀들의 진출입에 따른 잠수권 결정.
 - ㉢ 해산물의 공동판매.
 - ㉣ 마을의 각종 행사에의 지원(방법 및 개인별 역할 등)
- 잠수들의 항일투쟁 : ‘잠수회’를 기반으로 1930년대 일제의 탄압에 항거함.

- ㉠ 대표적인 항거 장소 : 구좌면 세화리 일대 및 우도 지구.
- ㉡ 투쟁한 인원 : 연인원 1만 7천여명. → 1930년대의 국내최대의 항일운동임.
- ㉢ 직접적인 원인 : 해산물의 소득에 대한 해녀어업조합과 관련기관(주로 일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음)의 착취에서 비롯됨. 당시 조합장(도사 ‘島司’가 겸직)은 다구찌 ‘田口’라는 일본인이었음.
- ㉣ 미친 영향 : 도내 청년들의 항일투쟁운동에 영향을 줌.

잠수들의 현재상황 · 향후의 문제 / 본받아야 할 점

- 잠수병 : 잠수들의 오랜 잠수생활로 인하여 생기는 병으로서, 두통 · 폐질환 등을 말함.
 - ◇ 잠수들의 의료 복지 문제 : ㉠ 잠수들의 무료진단 폐지 → 직업전환의 요소로 등장.
 - ㉡ 잠수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 및 대책이 시급.
 - ◇ 잠수 탈의장 건립문제 : ㉠ 잠수들의 생존권과 관련됨.
 - ㉡ 도(道) 또는 시(市) 차원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망.
- 본받아야 할 점 : ㉠ 잠수들의 정신력 및 근면성.
 - ㉡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5) 學習 指導案의 作成

이상과 같은 段階別 신문자료의 精選, 分類, 分析 및 解析, 要約 및 整理過程을 토대로 작성된 학습 지도안의 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 여기에서는 「학습목표」와 「교수-학습활동」사항을 중점으로 제시하며, 형성평가나 평가방법 등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하며, 나아가 학습내용의 난이도, 학습분량 및 배정시간은 교사가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 학습목표

- ㉠ 잠수들의 생활을 토대로 제주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이해한다.
- ㉡ 잠수들의 사용하는 도구와 그것의 변화를 이해하고, 옛 것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기르며, 현재 자신들이 사용하는 학습도구나 학용품의 소중함을 안다.
- ㉢ 과거에 잠수들의 조직한 잠수회를 기반으로 항일운동이 전개되었음을 이해하

고, 자신들이 행하는 학급회의나 특별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㉔ 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근면성을 이해하고, 개개인이 학교와 사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 ㉕ 잠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속담이나 잠수노래를 이해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줄 아는 슬기로우음을 깨닫는다.

■ 교수 - 학습자료²⁵⁾

- ㉑ 사진자료 : 잠수, 잠수도구, 해산물(전복, 소라, 딱조개 등) → 교과서의 잠수 사진, 본 신문 자료 상의 잠수, '태왁' 사진도 활용함.
- ㉒ VTR 자료 : 잠수와 잠수도구의 모습, 잠수일을 하는 모습, 해산물 판매과정의 모습, 잠수들과의 인터뷰 모습 등.
- ㉓ 신문(잡지, 화보)자료 : 잠수들의 항일운동 모습.
- ㉔ 통계자료 : 연도별 잠수의 변화수.

25) '잠수' 주제에서 「교수-학습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많다고 생각되나,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시청각 자료만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사례로 제시한 「교수-학습활동」에서 이 자료들 모두를 활용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 교수 - 학습활동

| 과정 | 학습 내용 및 활동 | 시간 | 자료 및 유의점 | |
|---------------|--|--|---|--|
| 도 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의 유발 · 제시한 3장의 잠수사진(신문자료)과 해산물 관련사진을 보고 감상 발표. · 식구나 친척 가운데 잠수가 있는 경우, 최근에 많이 채취하는 해산물을 발표(계절에 따라 다소 다르다). □ 학습문제의 파악 · 교과서의 '잠수' (p.101-102)내용을 읽고, 공부할 문제를 상기한다. · 잠수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잡으며, 왜 잠수가 되었는지를 생각한다. | 7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 및 해산물의 사진 제시 □ 잠수일을 하는 모습의 VTR 상영 | |
| 전 개 | 1 단 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들이 잠수일을 하게 된(또는 잠수가 된)배경 설명 · 제주의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의 특징 · 잠수들의 생활환경 : 과거와 현재 · 잠수들이 입는 잠수어의 변화과정 □ 잠수들의 도구, 채취하는 해산물에 대해 설명 · 태왁, 물안경(대, 소), 작은 호미, 작살의 용도. · 전복, 소라, 떡조개, 성게, 해삼, 툇, 우뚝가사리, 문어. · 토의 : 물속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해산물을 발표하기. | 7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원 모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한다. |
| | 2 단 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들의 타지역(반도부, 외국)에의 진출에 대하여 설명 · 과거 : 반도부 →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강원도 등. 외국 → 일본, 러시아. · 현재 : 거의 대부분이 마을 바다에서 활동. □ 잠수들과 관계되는 속담, 잠수(해너) 노래에 대하여 설명 · 속담 : 손이 놀민 입도 논다 →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들다. · 잠수노래 : 본래의 노래와 편집한 노래의 쓰임새. · 조별로 발표(홀수 조) : 잠수에게 인터뷰한 잠수노래. | 13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들의 타지역에의 진출에 대하여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도록 한다. □ 조원 모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한다. |
| | 3 단 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회(해너회)와 항일운동에 대하여 설명 · 조별로 발표하기(짝수 조) : 잠수회가 주로 하는 일. [마을바다 공동 관리, 공동판매, 마을의 각종행사 지원] · 항일 운동 : 잠수회가 기반, 해산물 소득에 대한 불이익. 도내에 미친 영향. | 10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원 모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한다. |
| 요약 및 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및 학습 내용정리 · 잠수병과 잠수 탈의장 문제 등은 잠수들의 감소 요인. · 잠수들의 정신력과 근면성이 강함 →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과제 제시 : 잠수에게 편지쓰기 □ 차시 학습내용 | 3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지쓰기 : 교사가 검토 후 특정인을 지정하여 발송한다. | |

(筆者의 案임.)

V. 結 論

본고에서는 新聞資料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地域學習에 적용하는 방법과 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최근 地域學習(또는 地域化 教育)에서는 항상 資料가 부족하다든지, 정해진 教科書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의 고질적인 병폐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장교사들의 教材研究 불성실에 따른 점도 적지 않다. 이처럼 교사들이 교재연구가 불성실한 裏面에는 과다한 업무부담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고는 바로 그러한 배경을 전제로 하여 출발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신문자료의 활용과 ‘잠수(潛婁)’ 主題를 통하여 어느 정도 지역학습에 대한 展開 可能性을 시사하였다. 본고에서 전개한 신문자료와 ‘잠수’ 주제에 대한 학습의 틀은 筆者의 個人的 思考가 작용된 形式的인 틀에 불과하지만, 이를 기초로 다양한 형태의 틀로 변화·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학습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地域社會의 실제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자료가 있다면, 教育現場에서는 그것들을 최대한 효과적인 형태로 활용하여, 지역학습의 深化는 물론, 여러 각도에서 지역사회를 經驗할 수 있는 모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문자료를 활용할 경우에, 교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문제도 없지 않다. 以下에서는 필자의 연구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점을 토대로, 신문자료의 活用 可能性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立場을 밝히기로 하겠다. 신문자료의 활용 가능성은 新聞記事를 교육자료로 선택할 경우(신문자료)의 利點과 難點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신문자료의 長點, 즉 활용시의 利點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 점은 本論部分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신문자료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다든지, 신문자료의 구입이 경제적이라는 소프트한 차원도 있지만, 그 보다는 학생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機會가 증폭된다는 점이다. 地域 教科書에 이미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신문자료를 연결시켜 학습한다는 것은 그 만큼 학생들에게는 親密感과 現場感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관심이 없던 지역사회의 현상이나 문제에 대하여 共感할 수 있으며, 학습후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感動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²⁶⁾ 특히 이 경우에 「地域新聞-地方學校」의 관계가 된다면 그 효과는 한층 크다고 볼 수 있다.

26) 大槻 健·臼井嘉一編, 1982, 『小學校 社會科の新展開』, あゆみ出版(日本: 東京), 253p.

나아가 신문자료의 활용은 교과서에서 설명되지 않은 最新知識을 최대한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과서가 표본적인 案内書(指針書)라고 한다면, 그 안내서에 따라 최신지식을 取舍選擇하여 修正·補完하는 데는 신문자료 만큼 편리한 것도 없을 것이다. 특히 國際關係나 國際動向, 국내외의 環境問題, 地域紛爭(민족·종교간 분쟁) 등 時事性을 요구하는 학습에서는 효과의 極大化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로는, 신문자료의 短點, 즉 활용시의 難點에 대한 문제이다. 먼저 指摘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문자료의 正確性과 誤謬性에 대한 문제이다. 中央地나 地方紙를 막론하고 어떠한 신문에도 記事의 誤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記事의 正確性을 어떻게 판단하며, 오류부분을 어떻게 수정하여 교육자료로 확보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점은 교사의 該當記事에 대한 취사선택의 차원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결국 교사 개인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른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신문자료상의 記事內容에 의거하여, 使用者(주로 教師의 입장)의 과장된 해석이 행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특히 資料의 教材化 段階에서부터 진행될 소지가 많다. 新聞記事는 읽는 독자에 따라 事物(狀況)의 이치나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내용을 初等學校課程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注意를 필요로 하며, 나아가 資料의 教材化 段階보다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곧 教育課程의 地域化에 대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²⁷⁾

여러 學者나 教育關聯機關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지역화 교육이나 지역학습에서는 필연적으로 資料의 地域化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자료의 구성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일선의 現場教師는 물론 학계의 관련 연구자들도 實例를 전제로 模型構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初等學校 교과서내의 학습주제와 관련하여 深化學習, 또는 延長學習이라는 배경속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中·高等學校 과정에서의 신문자료 활용과 지역학습에 대한 관련성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 점은 향후의 課題로 남는다.

27) 제주도교육청, 1996, 『사회과 탐구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아름다운 제주도(4-1)』, 시민당 인쇄사, p. 239

